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3 권 3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지혜 9,13-18 화답송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 독서 필레 9 L-10.12-17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복음 루카 14,25-33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table> <tr> <th>날짜</th><th>미사해설</th><th>독서</th><th>복사</th></tr> <tr> <td>9 월 8 일</td><td>유 요한</td><td>이 바오로</td><td>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td></tr> <tr> <td>9 월 15 일</td><td>이 마틸다</td><td>김 헬레나</td><td>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td></tr> <tr> <td>9 월 22 일</td><td>전 니콜</td><td>이 요한</td><td>성인복사</td></tr> <tr> <td>9 월 29 일</td><td>유 요한</td><td>이 바오로</td><td>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td></tr> </table>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table> <tr> <th>주일미사</th><th>봉헌금</th><th>2 차 봉헌</th><th>교무금</th></tr> <tr> <td>9 월 1 일</td><td>\$ 265.00</td><td>\$ 90.00</td><td>\$ 650.00</td></tr> </table>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9 월 순교자 성월 기도: 주일미사 15 분 전 9 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주일미사 시작 15 분전에 성당에 오셔서 다함께 '순교자 성월기도'를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고백성사: 주일미사 30 분 전 또는 예약 호세 노보아 신부님께서 주일 미사시작 30 분 전 (주일 오전 7:30 분)에 고백성사를 해 주십니다. 한인공동체 신자분들은 평소와 같이 한국어로 고백성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 월 8 일	유 요한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9 월 15 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9 월 22 일	전 니콜	이 요한	성인복사	9 월 29 일	유 요한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9 월 1 일	\$ 265.00	\$ 90.00	\$ 650.00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 월 8 일	유 요한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9 월 15 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9 월 22 일	전 니콜	이 요한	성인복사																												
9 월 29 일	유 요한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9 월 1 일	\$ 265.00	\$ 90.00	\$ 650.00																												
공 동 체 소 식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9/10(화) 저녁 8 시 임원회의는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 8 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9 월 성체조배: 9/12(목) 저녁 6 시 30 분 성체조배는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 시 30 분('6 시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9 월 소공동체 모임: 9/15(일) '8 시 주일미사' 후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매월 셋째 주일, 주일미사 직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전 요아킴 신부님 안식년: 8 월 1 일 - 12 월 6 일 전 요아킴 주임신부님께서 약 4 개월간 안식년을 가지십니다. 안식년기간 동안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6 월과 7 월사이, 산클레멘테 공동체로 이주 (또는 방문)을 오신 형제 자매님 을 환영합니다. [손승찬 마리아, 송원석 크리스토퍼, 이 춘호 프란치스코, 전 종순 실비아] 감사드립니다. 어제(8/31), '한인공동체 성당청소'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하루빨리 영육간의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일용할 양식, 미사 차 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인천대교구																															
요컨대, 자신의 삶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적 나눔은 우리로 하여금 동료 신자들 및 '천상교회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을 하나로 '결합'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성녀 베르나데트(1844-1879)의 다음과 같은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한 권고입니다. "매시간 세계의 다른 곳에서 미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을 그 미사와 일치시키며, 특히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때 그렇게 합니다." 넷째,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며, 우리가 마시는 피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흘리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5-56). 그러므로 성체성사 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요컨대,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교회의 영적 전 재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례헌장>10 항). 아름다운 증언들 성체에 대해서 많은 성인들과 교회가 아름다운 증언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체는 그 대상에 있어 모든 기적들을 능가하며, 그 지속성에 있어 그 어느것보다 으뜸갑니다. 성체는 영속적인 강생이며, 예수의 끝없는 희생이며, 제대 위에 항상 이는 불꽃(탈출 3,2)입니다. 그것은 만나이며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생명의 빵입니다.”(성 베드로 율리아노 에이말). -“하느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가 미사의 봉헌 앞에서 풀어진다.”(성 알베르토).		“미사성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미사성제만이 하느님의 (진노의) 팔을 붙들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수의 성녀 데레사). -“미사성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임종 때에 그들이 열심히 참례한 미사의 횡수만큼 많은 성인들을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해 줄 것임을 분명이 말해둔다.”(성녀 제르트루다). -성체를 통하여 “영생을 위한 약이요 죽지않게 하는 해독제이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하는 빵을 나누어 먹는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405 항). 성 요한 마리아 비엔네는 이처럼 은혜로운 미사를 '천상 보물함'에 비유 하면서 그 '열쇠'를 지닌 사제의 소중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사제와 천사를 만난다면 사제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천사에게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사제가 없다면, 예수님의 수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보물함에 금이 가득 들어 있다고 해도, 아무도 이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사제는 천상 보물함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세계적인 성령운동가 아일린 조지 여사는 미사의 은총을 환시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녀는 미사가 집전되는 중에, 제대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신자들 머리위로 은빛 눈 같은 은총이 내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한 기적이 매일, 미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